

봄기운 살랑이는 곳으로의 여행

봄은 참 더디게 온다. 시간은 이미 봄의 문턱을 넘었지만 겨울의 꼬리는 매섭고도 길게 이어진다. 아직은 바람이 차가운 2월. 봄의 따스한 온기와 싱그러운 빛깔을 찾아 남쪽 바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고대하던 봄의 기운이 시나브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글 임동근 기자·사진 임귀주 기자





1 비경 즐비한 거제 해안길

경남 거제는 700리에 달하는 굽이굽이 해안선을 따라 비경이 즐비하다. 특히 남동쪽 공곶이부터 최남단 홍포마을까지 남쪽 해안을 따라가는 길과 명소는 봄맞이 드라이브와 트레킹에 제격이다.

나르키소스, 수많은 처녀와 님프의 구애에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리스 신화 속 미소년이다. 어느 날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빠지고 만다. 그가 죽은 자리에서는 수선화 한 송이가 피어났다. 자기애나 자아도취를 뜻하는 ‘나르시시즘’의 유래다. 나르키소스의 운명은 비극적이지만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의 수려함은 수선화로 다시 피어났다.

거제도 남동쪽 끝자락에는 매년 봄 화사하게 피어난 수선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봄기운을 전하는 마을이 있다. 일명 ‘공곶이’. 지형이 궁둥이처럼 바다를 향해 튀어나왔다 해서 거룻배 ‘공(鰐)’자와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땅이란 뜻의 ‘곶(串)’자를 합쳐 붙인 이름이다.

공곶이는 예구마을 주차장에서 이정표를 따라간다. 예쁜 펜션이 서 있는 가파른 비탈을 10분 정도 걸으면 능선에 이르고 반대편으로 10분을 내려가면 공곶이에 닿는다. 능선에서 공곶이로 이어지는



2

1 여차-홍포 해안도로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2 공곶이에 피어난 하얀 빛깔 수선화 3 동백나무 계단을 내려가는 외국인 관광객 4 공곶이 바다 건너의 내도

길은 계단이 300개가 넘는 가파른 동백나무 터널이다. 붉은 꽃 내려앉은 끝 모를 터널은 마치 딴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 같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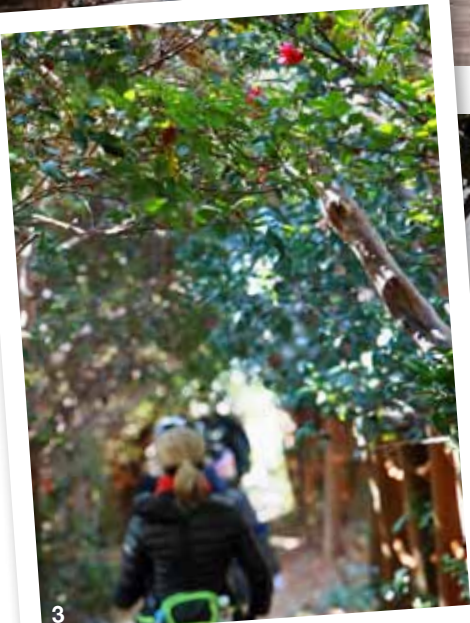
수선화 피어나는 바닷가 마을

2월 초순 농장에는 겨울빛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옥빛 바다를 배경으로 노랗게 핀 수선화의 물결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수선화의 푸른 줄기는 한 뼘만큼 솟아 봄날의 싱그러움을 알리고, 해안선을 따라 서 있는 종려나무는 이국적인 풍광을 선사했다.

“여긴 눈이 좀체 안 오는데 지난겨울은 추웠나 봐, 눈발도 날리고... 종려나무 근처나 발을 보면 제주도 수선화랑 이스라엘 수선화가 폼 어. 좀 춥긴 해도 봄이 벌써 온 기라.” 머리가 하얀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껏 즐기다 가라고 한다.

자세히 보니 발 한쪽에선 하얀 수선화가 군락을 이루고, 종려나무 아래에선 하얀 꽃밭침에 노란 꽃술을 품은 별 모양 수선화가 바람에 하늘거린다. 샛노란 수선화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피어나 공곶이를 노랗게 수놓을 것이다.

농장 끝자락에는 크고 작은 돌이 뒤섞인 몽돌해변이 있고, 시리도록 푸른 바다 건너에는 내도가 버티고 섰다. 해변을 따라 한껏 부드러운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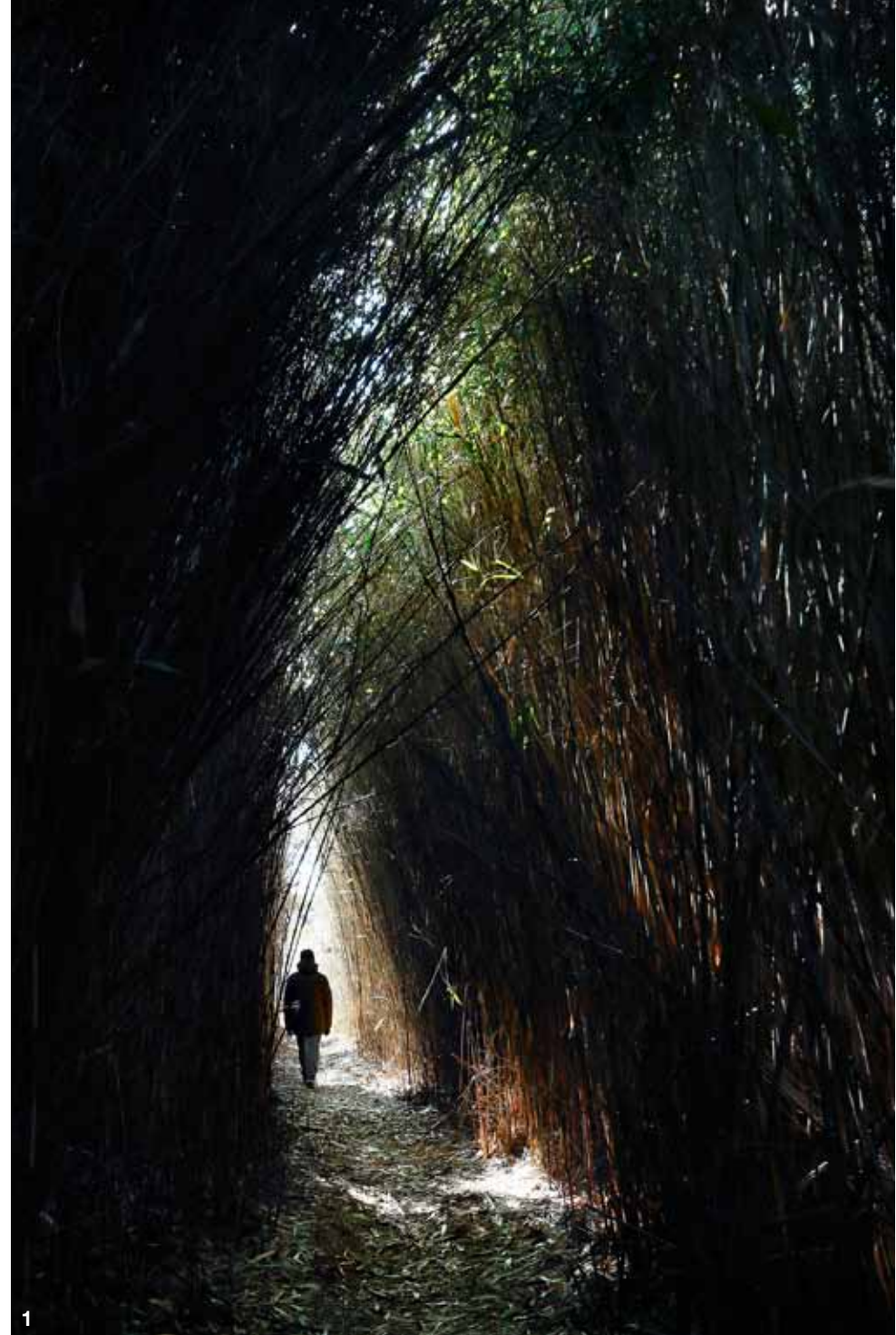
진 바람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영화 '종려나무 숲'에서 보았던 이국적인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 이는 농장 주인인 강명식·지상악 부부다. 예구마을에 살던 부인을 선 보러 와서 공곶이에 매료된 강 씨는 12년 후인 1969년 이곳에 터를 잡아 밭을 일구고 나무와 꽃을 심고 가파른 비탈에 계단을 놓았다. 이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 부부는 지금 거제 8경 중 하나가 된 마을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마음씨도 곱다. 김소엽 시인은 “봄은 거울을 인내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종려나무의 꽃말이 ‘승리’이듯이 봄날 공곶이에서는 시린 거울을 이겨낸 뒤의 화사함을 접할 수 있다. 수선화를 보며 자기도취가 아니라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구조라에서 만나는 뜻밖의 가경

예구마을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와현해수욕장이다. 초승달처럼 호를 그리는 조그만 백사장은 한낮 햇살에 하얗게 눈부시고, 생동감 넘치는 바다는 은빛으로 반짝인다. 연인들은 모래사장을 거닐다가 바닷가에 낙서하고 사진을 찍으며 봄날을 만끽한다. 다시 해안도로를 5분 정도 달리면 아름다운 외도와 해금강을 운항하는 유람선이 출발하는 구조라다. 선착장에는 봄날의 외도와 해금강을 돌아보려는 이들이 길게 줄 서서 식지 않은 인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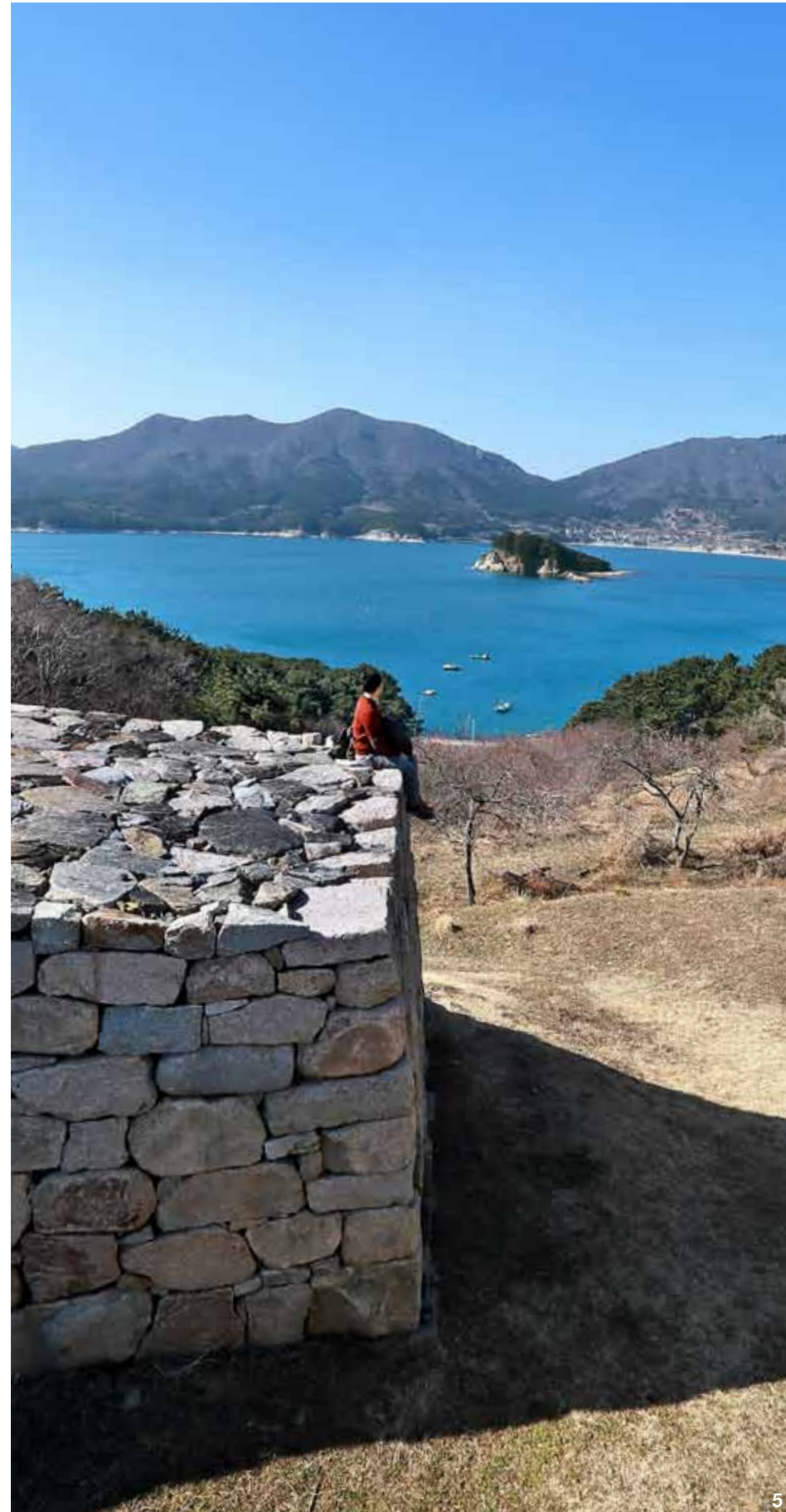
1



3



4



5



6

구조라는 외도와 해금강 유람선이 출항하는 곳이다. '세바람소리길' 이정표를 따라가면 하늘을 가린 대숲과 옥빛 바다를 감상하고 조선 시대 축조된 구조라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구조라는 유람선만 타는 장소가 아니다. 선착장 맞은편으로 '세바람소리길' 이정표를 보고 빗바랜 벽화가 있는 골목길을 따라가면 뜻밖에 아름다운 풍경과 조우하게 된다. 오른쪽으로 구조라해수욕장의 맑은 풍경을 감상하며 계단을 오르면 이내 대나무가 하늘을 뒤덮은 숲길을 지난다. 방풍림으로 조성한 대나무가 지금은 길에 운치를 더하고 있다. 숲길을 지나 탁 트인 공간으로 나서면 조선 시대 왜적을 막기 위해 축조한 구조라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성에 올라 주변을 둘러본다. 청옥 빛깔 바다와 아늑한 어촌 풍경이 눈을 시리게 한다. 탐방로를 따라가면 서낭당과 전망대에서 특별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청춘을 유혹하는 해안 명소들

시원스런 해안 풍경을 감상하며 다시 20분을 달리면 학동몽돌해변에 닿는다. 몽글몽글 돌이 깔린 해변은 유명 관광지답게 가족, 연인,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눈다. 물수제비를 뜨는 청춘들도 볼 수 있다. 10분 거리에는 바람의 언덕이 있다. 거제도 최고의 낭만 명소에는 유독 청춘들이 많다. 나무로 만든 산책로를 따라 잔디 깔린 언덕을 오르면 바람



거제의 남쪽 해안은 따스하고 매력적이다. '자그락' 소리로 음악을 연주하는 몽돌 해변과 낭만적인 바람의 언덕, 평온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여차~홍포 해안도로는 봄맞이 여행지로 그만이다.



- 1 파도가 칠 때마다 소리를 내는 학동몽돌해변
- 2 물수제비를 뜨고 있는 관광객들
- 3 바람의 언덕 아래에서 맛볼 수 있는 '바람의 핫도그'
- 4 바람의 언덕 아래에 있는 바람의 쉼터
- 5 바람의 언덕에서 바라본 풍경
- 6 여차~홍포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

이 세차게 분다. 동백나무가 막아선 언덕의 끝자락에 이르면 풍차 뒤로 바다가 펼쳐지는 영화나 광고 속 장면이 펼쳐진다. 언덕 아래에는 바다 위에 다리를 놓고 힐링 공간을 조성한 바람의 쉼터가 있다. 좀 더 따뜻해지면 방문객은 지친 다리를 바닷물에 담그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돌아가는 길에는 담백한 '바람의 핫도그'도 하나씩 베어 물면 좋을 듯하다. 거제도 남쪽 해안은 여차~홍포 해안도로에서 마무리된다. 늦은 오후부터 해 질 녘 그곳 전망대에 서면 대병대도, 소병대도, 매물도 등 주변을 두른 섬들이 은빛이나 금빛으로 반짝이는 바다에 떠 있는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 '조선업 메카' 거제는 요즘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어느 곳보다 지난겨울이 차갑고 길게 느껴졌을 것 같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 나라에서 봄을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온화한 봄바람이 겨우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녹였으면 바람이다.





2

장사도 푸른 바다 위에 핀 꽃송이

통영 장사도는 거제에 있는 지심도와 함께 봄마다 동백꽃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여행 명소로 꼽힌다. 동백꽃을 비롯한 다양한 꽃이 망울을 터뜨리고, 말끔하게 치장된 그곳에서 방문객은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유람선을 따라가는 갈매기



멀리 보이는 미인도를 형상화한 '바다·섬·여인' 조각상



동백꽃 핀 장사도



장사도 분교



장사도 분교 분재공원



무지개다리

장사도는 긴 뱀이 엮여 있는 형국의 섬이다. 한자도 길 장(長)에 긴 뱀 사(蛇)를 쓴다. 또 다른 이름은 '늑비섬'이다. 늑비는 누에의 경상도 방언이다. 그래서 누에를 닮은 섬은 '잠사(蠶絲)도'라고도 불린다.

장사도 가는 배는 거제 가배항과 대포항, 그리고 통영유람선터미널에서 출발한다. 이 중 가장 가까운 항구는 거제 남서쪽에 있는 대포항. 포구에서는 기다란 장사도가 손에 닿을 듯 가깝다. 유람선이 포구에서 출발하면 10여 분 만에 닿을 수 있다.

길이 1.9km, 폭 400m의 조그만 섬에는 원래 주민 80여 명이 살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이 빠져나가더니 결국 낚시꾼만 찾는 무인도가 됐다. 이후 7년간 공사를 거친 장사도는 2011년 '장사도 해상공원 까멜리아'로 재탄생했다. '까멜리아'(camellia)는 동백을 뜻하는 영어 단어다. 장사도에는 동백나무가 10만 그루나 있다.

붉은 동백이 마중하는 낭만적인 섬

유람선에서 내리면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구실잣밤나무가 만들어낸 싱그러운 초록빛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애기동백은 분홍빛 꽃잎을 활짝 열고 마중을 나왔다. 잘 닦인 산책로를 따라 비탈을 400m쯤 오르면 중앙광장. 그곳에는 '바다·섬·여인'이란 조각상이 누워 있다. 맞은편 바다 너머에는 조각상과 꼭 닮은 여자가 누워 있는 형체의 섬인 '미인도'가 떠 있다.

조금 발걸음을 옮기면 죽도국민학교 장사도 분교가 나온다. 교실 건물은 그대로지만 운동장은 다양한 모양의 분재가 전시된 공원으로 꾸며졌다. 운동장 한쪽에는 그 옛날 말뚝박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을 형상화한 동상도 있다. 교실 앞쪽에는 2014년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장면이 담긴 안내판이 서 있다. 장사도는 드라마에서 순간 이동한 외계인 도민준(김수현)과 배우 천송이(전지현)가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로 나온다.

분교를 나와 동쪽으로 가면 빨간색 화사한 무지개다리가 나타난다. 수려한 바다 전망이 내려 보이는 다리에선 방문객들이 기념사진을 찍느라 발걸음을 한 번씩 멈추고 지낸다. 다리를 건너면 '달팽이' '승리' '다도란' 이름이 붉은 전망대가 연이어 나타난다. 그곳에선 섬에서 바라보는 세 가지 다른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난대식물과 선인장, 양치류가 있는 온실



섬아기집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촬영된 동백 터널



부영이 전망대



조그만 예배당

불거리 다채로운 초록빛 산책로

다도전망대를 뒤로 하고 다시 무지개다리 방향으로 가면 길은 다리 아래로 이어진다. 다리 밑에는 장사도 해상공원 개발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길은 이제 온실로 이어진다. 시원스런 바다 풍광이 펼쳐지는 산책로에는 연인들의 기념촬영을 위해 커다란 흰색 하트 조형물 두 개도 설치됐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트가 어우러진 풍경은 무척 낭만적이다.

오쭙 누는 소년상이 있는 인공폭포를 지나 온실로 들어서면 초록 빛깔 싱그러운 온대식물과 다양한 빛깔과 모양의 꽃들이 방문객에게 완전한 봄 분위기를 전한다. 온실을 돌아 나와 산책로를 따라가면 옛날 주민이 살았던 집을 깔끔하게 단장한 '섬아기집'이 나온다. 마루에 앉아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다.

섬아기집 인근에는 장사도의 상징인 동백 터널이 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두 주인공이 대화를 나누면 예쁜 공간이다. 드라마에서처럼 붉은 동백꽃이 바닥을 장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해가 잘 드는 가지에 매달린 동백꽃의 우아한 자태는 꽤 매력적이다.



야외갤러리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된 공간

길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는 부채살 모양 야외공연장으로 이어진다. 1천석 규모 관객석 맨 뒤편에는 김정명 작가의 조형작품 '머리12'가 서 있다. 커다란 청동 두상 12개는 종교, 성(性), 12지, 상(賞), 건물, 브랜드, 쓰레기 등 12가지 주제로 꾸며졌다. 주제별로 다양한 형상을 결합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의미를 찾는 재미가 있다. 인근에는 방문객이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빨간 우체통을 설치해 놓았다. 야외공연장을 빠져나가면 정말 조그만 예배당을 만나게 된다. 1973년 장사도 분교 교사가 세운 교회다. 주민 80여 명 중 70명이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음료나 커피, 음식을 즐긴 후 마지막 방문지로 찾는 곳은 야외갤러리다. 산책로 여기저기에서 흥미로운 조형작품을 감상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장사도는 자연 친화적인 섬이다. 산책길은 원래 주민이 사용하던 것이고 필요한 건물은 공터에 지었다고 한다. 장사도를 돌아보려면 가방을 타고 온 배에 두고 가야 한다. 음주와 취사로 인해 섬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카페테리아



야외공연장



1 촛불 조형물로 꾸며진 원예예술촌
공공정원 2 프랑스풍 프렌치 하우스 3 카페
'자스민 하우스' 4 네덜란드풍 주택 5 화사한
배추꽃 6 양 떼가 풀을 뜯는 모습으로 꾸민
호주풍 주택



3

남해 원예예술촌 예쁜 정원을 만난다

남해는 '보물섬'으로 불린다. 섬 곳곳에 보물 같은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원예예술촌은 남의 예쁜 정원과 집을 한가롭게 기웃거리며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봄의 마을'이다.

남해에는 계단식 논이 이채로운 가천다랭이마을, 붉은 지붕이 물결을 이룬 독일마을, 서양식 주택이 들어선 미국마을 등 독특한 모습의 마을들이 있다. 독일마을 바로 옆에 있는 원예예술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마을 중 하나다. 남쪽 끝자락인 남해군 삼동면 낮은 야산에 있는 원예예술촌은 서울과 경기도에 살던 원예전문가들이 찾아오면서 형성됐다. 이들은 2009년부터 정원과 집을 작품으로 가꾸며 살아가고 있다. 18개국 집과 정원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주택 21개가 꽃처럼 마을을 채우고 있다. 또 공공정원과 산책로, 전망 데크, 온실, 실외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초록빛 싱그러운 정원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슬슬 가늠기 좋은 정원에서는 매화나무가 수줍은 듯 하얀 꽃망울을 터뜨렸고, 배추꽃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봄이 무르익으면 이곳에는 벚꽃, 철쭉, 장미, 수국이 차례로 피어날 것이다. 공공정원을 지나 언덕에 오르면 마을의 예쁜 집과 정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에서 볼 수 있는 정원을 가진 '프렌치가든'이다. 맞은편에는 모래, 돌길, 바위, 석등, 분수가 꽃나무들과 어우러진 정갈한 일본풍의 '화정'(和庭)이 있다. 핀란드식 통나무집을 비롯해 이탈리아풍 대리석 주택, 현대적인 미국식 전원주택, 풍차가 달린 네덜란드 주택 등은 각국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집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정원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진을 찍거나 돌아볼 수 있다.



원예예술촌은 세계 각국의 정원과 주택을 엿볼 수 있는 마을이다. 정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봄을 만끽하고 주민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운 좋으면 탤런트 주민도 만나

이곳에선 마을 주민과 스스럼없이 대화도 할 수 있다. 주민 대부분이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 등 방문객을 위한 상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들어가서 차나 커피를 마시며 주민과 대화를 하면 원예예술촌의 지나간 시간을 함께 더듬어볼 수 있다.

특히 카페 '자스민 하우스'는 전망이 좋기로 소문난 곳. 카페 안에서는 넓은 창밖으로 펼쳐진 남해의 들판과 바다가 시원스럽게 내려다보인다. 정명실(70) 씨가 지난가를 건물을 지어 문을 연 이곳에선 향초와 디퓨저, 석고방향제 등을 기념품으로 팔고 있다.

정 씨는 "처음엔 천국에 유배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은 마치 고향처럼 따스하고 즐거운 곳이 됐다"며 "아름다운 남해에 온다면 원예예술촌의 즐거움도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을에서는 운이 좋으면 남해 출신 배우인 박원숙 씨와 맹호림 씨도 만날 수 있다. 맹 씨는 핀란드 통나무주택인 '핀란드야'에서 살고, 박 씨는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박 씨의 카페는 현재 재단장 중이다.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문화관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시하는 미술관, 음식을 파는 식당도 있다. 봄꽃이 만발하는 매년 5월에는 '꽃밭 축제'가 열린다. ⑦

INFORMATION



거제 구조라 마을 전경

봄 기운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남쪽 바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인기 드라마 ‘도깨비’ 속 대사를 빌리자면 그곳에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아서” 부드럽고 싱그러운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 여행 정보



장사도 해상공원 코스 및 요금			
구분	운행코스	운항요금	장사도 입장료
※ 승선 신고서 ※ 먼저 작성하여주세요 ※용어도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A코스	대포-장사도 상륙	대인 ₩15,000	대인 10,000
	소인 ₩9,000	청소년 ₩8,000	청소년 5,000
※ 승선신고서와 신분증을 같이 제시해주세요			
※ 장사도 해상공원내에는 간단한 소지품 외 낚시 등 일제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해상공원 유람선 이용 방법

통영유람선터미널, 거제 대포항과 가배항에서 장사도로 가는 유람선을 탈 수 있다. 가장 가까운 대포항에서 대포크루즈(☎ 055-633-9401)를 이용하면 10분, 가배항에서 장사도유람선(☎ 055-638-1122)을 타면 15~20분 걸린다. 통영유람선터미널에서 통영유람선(☎ 055-645-2307)으로는 40분이 소요된다. 통영 출발 유람선이 더 걸리지만 한려수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람선 왕복 요금은 비수기 평일 기준으로 대포항이 중학생 이상 1만5천원/24개월~초등학생 9천원, 가배항이 1만6천원/1만원이다. 통영에서는 일반유람선 2만1천원/1만3천원·대형크루즈유람선 2만3천원/1만5천원. 장사도 입장료(대인 1만원, 청소년 8천원, 36개월~초등학생 5천원)는 매표 시 지불해야 한다. 운항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다.



장사도 해상공원 탐방 정보

장사도는 내리는 선착장과 타는 선착장이 다르다. 나눠주는 지도를 참고해 번호순으로 이동하면 된다. 관람 시간은 2시간이며, 타고 온 배로 돌아가야 한다. 3월부터는 장사도를 2시간 만에 돌아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시간과 관계없이 왔던 항구로 가는 배만 타면 되는 자율관람제를 시행한다.



원예예술촌 방문 정보

3월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는 일반 5천원, 65세 이상 4천원, 청소년과 군인 3천원, 어린이 2천원. 마을을 돌아볼 때 주책 안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 055-867-4702, www.housengarden.net

▶ 둘러볼 곳



신선대

바람의 언덕 반대쪽 해안에 있는 커다란 바위로 신선이 놀던 자리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갯처럼 생겨 ‘갯바위’라고도 불리는데 벼슬하고 싶은 사람이 이 바위에서 제를 올리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바위에 서면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지고, 바위 옆으로는 몽돌이 깔린 함목해수욕장이 자리한다.



청마문학관

‘행복’ ‘갯발’ 등의 시로 유명한 청마 유치환(1908~1967)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다. 전시관은 청마의 삶을 조명하는 ‘청마의 생애’, 작품을 감상하고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청마의 작품 세계’, 유품과 평론, 서적이 있는 ‘청마의 발자취’로 구성돼 있다. 기념관 뒤로는 생기가 복원돼 있다. 두 채의 초가와 싸리나무 문, 텃밭과 우물 등 청마가 태어난 1908년의 모습을 재현했다. ☎ 055-650-2661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미륵산 전망대를 오르내리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길이가 1천975m로, 관광용으로는 국내 최장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면 통영 앞바다와 한려수도를 감상하고, 해돋이와 해넘이를 즐길 수 있다. 운행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요금은 왕복 기준 대인 1만원, 소인 6천원. ☎ 1544-3303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한국전쟁의 아픔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전쟁 발발에서 휴전까지의 과정을 기록물과 사진, 영상, 모형을 통해 볼 수 있다. 흥남철수작전 기념탑,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피란민, 포로수용소의 배치 상황과 생활상, 폭동 현장을 볼 수 있다. 포로생활관, 폭동 장면을 모형과 조명·음향으로 전하는 포로폭동체험관도 있다.



가천다랭이마을

남면 해안관광도로 최남단에 있는 마을로, 미국 CNN 방송은 2012년 이곳을 대한민국 관광명소 3위로 꼽았다. 가파른 해안 비탈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명승 제15호)가 이색적인 경치를 선사한다.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면 암수바위, 밥무덤, 구름다리, 몽돌해변을 돌아볼 수 있다. 식당과 카페도 있어 휴식하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금산 & 보리암

금산(해발 704m)은 기암괴석이 금강산을 닮았다 해서 ‘소금강’ 혹은 ‘남해금강’으로 불린다. 신라의 승려 원효는 683년 금산에 초당을 짓고 관세음보살을 만났고, 태조 이성계는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한 뒤 조선을 개국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주차장에서 20분을 걸으면 달는 보리암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풍경이 무척 수려하다.